

손 소독제 (Hand sanitizer)

하루 종일 손 소독제(Hand sanitizer)를 사용하다 보니 결국 손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손바닥 껍질이 얇아지더니마는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끝내 몇 군데가 갈라진 것이다. 큰 상처는 아니지만 신경이 많이 쓰여 지는 일이 되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받아 적는 동안 손님들이 내 손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상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다. 잘 관리 하려고 하지만 손 소독제 앞에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집에 돌아오면 계속해서 약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 난 곳을 조치하지만 며칠의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많이 불편하다.

그 중 엄지손가락 끝이 갈라졌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상처지만 정말 불편했다. 가장 불편한 것은 옷을 입을 때에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친구 중에 오른팔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났다. 그 친구는 평생 불평하지 않고 단추를 끼우고 양복을 입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불편은 펜을 들고 하루동일 받아 적기가 어렵다. 펜을 힘 있게 잡을 때마다 아픈 곳에 새로운 아픔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장갑을 끼고 일하기로 했다. 그렇게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반나절을 일했다. 그리고 오후에 장갑을 벗고 손을 닦는 동안 깜짝 놀라게 되었다. 한 가지는 오른손이 몇 시간 동안 놀랍게 부드러워졌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왼손이 오른손에 비해서 마른 나무토막 같았다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손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증명이 되는 시간이었다.

그날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주신 몸이고, 또한 사역을 하라고 주신 손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받들어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몸이라는 사실이다. 그 생각과 아울러 돌아보니 내가 나의 몸을 잘 관리한 적이 별로 없었다. 건강은 그저 따라오고, 근육은 늘 새로워진다는 착가 때문이었다. 나 스스로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 몸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나의 건강을 챙겨가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1-22절)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라고 하신다. 그 말씀대로 살면 육체의 건강도 따라 온다고 약속하셨다.

터진 피부를 위하여 계속해서 핸드크림을 바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온 몸에 두르고 살아가면 어떠한 외부의 공격과 인생의 찬바람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고 진리인데 다른 곳에서 인생의 성공을 찾았으니 여기저기가 터지고 상처가 나서 아프고 절룩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나의 육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늘 두르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이기며 믿음의 갈 길을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 길만이 여기저기 터지지 않고 살 생명의 길이다.